

서거석 교육감 취임 1년 성과

‘전북교육 대전환’ 기동 세웠다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서 교육감에게 지난 1년은 학생 중심 미래교육,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을 위해 수지 않고 달려온 시간이었다.

“현장에 답이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주민 등 교육 현안이 있는 곳은 어디든 달려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도내 14개 시·군은 물론이고 서울시교육청 등 여러 기관과의 협력 관계도 새롭게 구축했다.

이는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고 학생을 중심으로 미래교육 정책을 펼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행보였다.

이에 기초학력 책임제, 미래교육 환경 구축, 작은 학교 살리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과 조화 학생 해외연수 등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서 교육감 취임 1년의 성과를 살펴본다.

▲기초학력 신장 기틀 다졌다

“침체된 전북교육을 살려내겠습니다.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서 교육감이 1년 전 취임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한 약속이다. 지난 1년 동안 온 힘을 쏟은 정책 중 하나가 기초학력 책임제였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는 2023년을 ‘기초학력 책임 임년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기본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1단계 교실 내, 2단계 학교 내, 3단계 학교 밖 등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구축했다. 현재 교실 안 1단계에서는 1수업 2교사제가 운영되고 있다. 기초학력 협력교사 140여 명이 69개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와 15개 학력지원센터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돕고 있다.

2단계의 경우 682개 두드림학교에서 학습, 심리, 정서, 건강 가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마지막 3단계는 학교 밖 15개 학력지원센터에서 난독·경계선지능 진단, 교육·치료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또한 학력지원단의 학력컨설팅, 학습상담, 학교별 수업협력도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교과보충 프로그램도 있다. 총 517개 학교에서 9,300여명의 학생이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수업을 받고 있다. 4명 이하 단위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학습 효과가 크다.

▲미래교육 환경 구축 ‘본궤도’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도 본궤도에 오를 채비를 마쳤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올 2학기에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6만5,000여대를 보급한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는 태

블릿을,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는 노트북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교실에는 3,100여대의 스마트철판관을 설치한다. 스마트기기가 보급되고 스마트철판이 설치되면 에듀테크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스쿨넷 인터넷 속도도 1Gbps급으로 높이고, AI 기반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교사들의 에듀테크 역량도 강화된다. 관련 연수에는 8,300여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특히 지난 4월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사업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2023년까지 약 479억원을 투입되는 미래교육캠퍼스에는 △미래기술체험관 △미래진로체험관 △미래교육관 △공유관 △스포츠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골 작은학교에 활기 가득

“작은학교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서 교육감이 학부모 등 교육가족을 만날 때마다 한 말이다.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농촌유학과 어울림학교를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가장 먼저 농촌유학의 성과가 눈에 띈다. 지난해 6개교, 27명에서 올해 18개교, 82명으로 농촌유학 협력학교와 유학생 규모가 모두 3배 늘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시·군과의 협력을 통한 유학생 주거시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어울림학교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공동통학구역 어울림학교의 시·군간 경계가 허물어져 내년부터는 다른 시·군에 있는 학교에도 다닐 수 있다.

전교생 10명 미만인 아주작은학교 통합도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기초학력 책임제·미래교육 환경 구축·작은학교 살리기 기반 구축 학생인권·교권 균형과 조화·학생 해외연수 확대 등 ‘착착’ 진행

의 하나다. 아주작은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수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아주작은학교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보고 올 하반기부터 아주작은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교사·학생 인권 모두 존중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기본조례가 지난 4월 제정됐다.

이 조례 제정으로 전북교육인권센터가 설치됐다. 교육인권센터는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교육활동보호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활동보호팀에서 상담·조사,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피해 교사가 생기면 교권진담 변호사가 나서서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같은 달 전북학생의회 출범으로 학생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5일 열린 전북학생의회 제1회 정기회에서는 △학생 흡연을 저하를 위한 금연지원정책 △고등학교 1학년 3월 전국연합학력 평가 응시권 보장 △학생회장단 선거공약 이행비 지원 △선거 나이,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참정권 교육 △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등 모두 5건의 의결했다.

전북교육청은 학생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학생 해외연수 인기

서 교육감이 임기 내 1만 명을 약속한 학생 해외연수도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올해만 초·중·고 학생 2,500명이 해외연수에 참여한다.

해외연수는 역사·문화 탐방, NASA 글로벌 캠프, 진로·진학 탐방, 다문화 부모나라 체험, 직업계고 글로벌 기능 인재 캠프, 영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참가 학생을 지역·계층·학교급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하는 데 공을 들였다.

전북교육청은 해외연수 이후 성과 보고회 등을 통해 내년에는 더욱

일한 해외연수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서울 100번 왕복... 8만 3000명 만났다

서거석 교육감의 현장 중심 소통 행보가 눈에 띈다.

서 교육감은 지난 1년 시간을 쪼개 14개 시·군을 누비며 각계각층으로 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학생 1만여명, 학부모 1만8,000여명, 교직원 6,000여명 등 총 8만3,000여명을 200여 차례에 걸쳐 만났다.

쉽 없이 달린 거리만 4만3,000km였다. 전주에서 서울까지 215km를 100번 왕복한 거리다.

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지론에서 비롯된 행보였다.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협력에도 힘을 쏟았다. 전북도와 교육협력추진단이라는 상시 협의체를 만들었고, 14개 시·군과는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또 시·군의원들과도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희망의 전북교육 집 짓겠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9월부터 전북에 듀에이를 지급한다. 초·중·고 신입

생은 30만 원의 입학지원금을, 초·중·고 졸업생은 30만원의 진로지원비를, 그 밖의 학생은 20만원의 학습지원비를 받는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3학년이, 내년은 초등학교 2~6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지급 대상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습지원비가 지급된다. 공·사립, 일반교와 직업계고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같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서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모든 학생에 에듀패이를 지급하는 것은 전북이 처음이다.

전북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 등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기기 보급, 아주작은학교 통합, 전북에듀에이 지급 등 학생 중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년 전북교육청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해 온 힘을 다해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전북교육 대전환의 기동을 세웠다”면서 “지난 1년의 초석을 바탕으로 남은 3년 동안 희망의 전북교육을 위한 튼튼한 집을 짓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등 9개 대학·국회의원·정부기관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머리 맞대’

지역 혁신 성장 거점 조성 방안 모색 위해 포럼 열어

전북대를 비롯한 9개 대학으로 구성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대학협의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9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선정 대학과 김성주 국회의원, 김유덕 국회의원 등 참여 대학별 지역구 국회의원 17명이 공동 주관해 이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혁신 성장의 거점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9개 참여대학 총장단과 김민기 국토교통부차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참여 대학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부부처, III 관계자를 비롯해 120여 명이 참석해 온·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생



전북대를 비롯한 9개 대학으로 구성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대학협의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중계됐다.

김우승 한국공화교육인증원 원장(前 한양대 총장)의 ‘산학연협력 활성화 방안’과,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강원대 교수)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과 지역혁신 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이어 김현영 강원대 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홍진기 산학연연구원 명예 연구위원,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 박철우 한국공화대학교 교수, 김홍주

IIR지주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패넌로 참여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혁신 체계 구축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양모봉 총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1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선도대학들과 활성화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지역혁신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대학은 지역과 상생 발전을 이끄는 플래그십 대학으로서 1단계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캠퍼스 혁신파크를 운영하기 위한 산학연협력의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대학협의회는 전북대학교와 강원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한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창원대학교, 난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부경대학교 등 9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마약 예방교육 담당교사 역량 강화

도교육청, 21일까지 14개 시군서 총 6회 걸쳐 연수

전북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 전문 강사 초청 강연

전북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은 오는 21일까지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담당교사 775명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2023년 마약 예방교육 담당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마약 예방 교육에 대한 교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3월 익산에서 시작된 연수는 4일 정수와 순창, 5일 무주, 6일 남원 등 오는 2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에서 진행된다.

전북마약퇴치운동본부 소속의 전문 강사가 △청소년의 마약류 남용 실태

△마약류 이해 △학교급별 맞춤형 마약 예방교육 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특히 도교육청은 14개 교육지원청에 전문강사를 지원해 학교급별에 마약 예방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마약지도가 가능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강사는 “학교 중심의 마약 예방교육 강화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한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가정, 학교, 교육청 및 지역사회 모두가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